

## "강원 중심 통일기반 조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열려

기사입력 2015/10/07 15:09 송고



기조연설하는 윤영관 교수 (출처=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15.10.7 conanys@yna.co.kr

7일 강원일보사·강원발전연구원·강원대 공동 개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북 정세를 진단하고 강원도 중심의 통일 역량 방안을 제시하는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7일 오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통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윤영관 전 장관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창환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윤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나 급작스러운 변화의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통일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설정하고 미국과 중국 간 균형외교가 아닌 중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15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15.10.7 conanys@yna.co.kr

그는 또 "정치적으로 통일하더라도 남북주민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없으면 그 통일은 오래 지탱할 수 없다"라며 "서독의 사례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와 남북 간 구심력을 강화하고 통일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비 전략적인 인내로 귀결될 공산이 커 재고가 요구된다"며 "더 미시적인 접근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에서는 남북관계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  
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07 15:0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